

여야, 서울시장 후보 구도싸고 '내홍'

한나라 '복지정책' 계파간 격한 파열음

민주 '통합후보' 주·비주류 날선 신경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내부에서 구도와 전략 등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등 추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 큼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5.7%의 주민투표율은 보수층이 결집한 것인 만큼 야당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한 번 배운 프레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흥준표 대표는 30일 라디오 연설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 무차별 복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재원을 빼앗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악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친이 진영에서는 주민투표가 무산됐지만 한나라당의 단계적 급식에 대한 서울시민의 여론은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점진적인 복지 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수의 결집 방향으로 나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자자 '무상급식 2라운드', '보수의 대결집' 식의 과거 회귀적인 주장을 내놓으면 팔레"라면서 "미래

에 대한 선택으로 물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를 놓고 격한 파열음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야권 통합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순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와 이를 '특정 인사 추대론'으로 의심하는 비주류가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순학규 대표는 이날 서울교육문화

회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야권 통합의 고두보가 될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제야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통합후보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내 비주류모임인 '민주희망 2012'는 이날 조찬 모임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공정한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조만간 성명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는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조숙숙 최고위원과 김영진, 문학진, 장세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주류 측에서는 순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경선 없이 추대하거나 외부인사를 전략적으로 공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정과 관련, 민주진보 진영의 야권 통합과 함께하는 통합 경선을 추진하게 차선으로 '선(先) 당내 경선, 후(後) 후보단일화' 상황을 상정한 작업도 별도로 하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문상필·서정성,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광주지역 저소득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 3·사진 왼쪽) 의원과 서정성(민주·남구 2)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인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지원된다. 총 4464세대에 월 평균 3393만원, 연평균 4억72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정병문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통과"

광주시의회 정병문(민주·비례) 의원은 30일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광주시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전력이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 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해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도록 하는 안을 포함했다. 비용은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 문화수도특위장에 임동호 의원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에 임동호(교육의원·동·남) 의원을, 간사에 전주연(민노·비례)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문화수도특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20일 구성된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활동기간을 2012년 7월19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위원으로는 흥인화·허문수·문상필·김보현·정병문·이은방·김영우·서정성·박인화·손재홍 의원이 선임돼 활동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시당위원장

김정업씨 선출

한나라당 광주 시당 위원장에 김정업(64·광산구)을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한나라당 광주 시당은 30일 광주 북구 중흥동 당사 5층 대강당에서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2011 광주시당 정기대회'를 열고 시당위원장에 김정업 후보를 선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선거에서 대의원 선거인단(517명)의 유효득표 347표 가운데 181표를 얻어 166표를 얻은 김광만(50·전 시당위원장) 후보를 15표 차이로 누르고 시당위원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다.

신임 김정업 시당위원장은 "당내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당원을 섬기고 민심을 받을겠다"라며 "김광만 후보와 함께 당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시당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산 남성고를 거쳐 명지대를 졸업한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 전국 상임 위원과 중앙라이온스클럽 부회장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화 이팅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워크숍에서 순학규 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바라는 내용을 적어 희망나무에 매단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곽노현 2억 중 공금 의심자금 추적

일부는 郭씨 부인계좌서 인출 확인...돈 전달 강경선 교수 영장 검토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단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0일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 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일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발견, 돈이 나온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 친인척, 박 교수 동생을 거쳐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가운데 2월22일 전달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곽 교육감의 부인인 정모씨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이 돈에 교육감 관공비, 교육청 사업비 등 공적인 항목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곽 교육감이 제3의 인물 또는 조직으로부터 횡령하게 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1억7000만원의 출처와 강 교수를 통해 박 교수 측에 건네진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은 곽 교육감이 주택자금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돈을 변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부 자금에는 개인 돈인지, 공금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돈에 교육감 관공비, 교육청 사업비 등 공적인 항목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곽 교육감이 제3의 인물 또는 조직으로부터 횡령하게 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규 접촉' 정관계 10여명 우선 조사

검찰 '저축銀 버리' 수사 박씨 영장 청구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부산지점은행그룹에서 구명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지점은행그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은행의 퇴출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구명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지점은행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킨 대가로 그 다음 달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 옆 커피숍에서 부산지점은행그룹에서 구명 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받은 데 이어 정관계 고위층 인사로 비용을 지급으로 확보한 자료분석 등을 통해 접촉 대상자들을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평소 접촉해온 정관계 인사들과의 통화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 6~8월 통화가 잦았던 10여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압축, 이들이 로비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박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선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① 교육기간 : 2011년 9월 9일(금)~2012년 6월 말일까지 : 1년과정

※ 매주 금요일 주회 19시~21시 교육

②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③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 각종선출미예상자, 전문직 및 직능별종사자, 남성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④ 교육과정

대학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상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짐작 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연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

⑤ 교육요령 : 실습 주제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시까지 실습 위주 지도

⑥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11년 8월 1일(월) ~ 8월 31일(수)

· 등록시간 : (월) ~ (금) 10: 00 ~ 17: 00

· 등록장소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호실관 4층)

⑦ 등록방법 (수강료 :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 광주대 평교원)

⑧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연설자 추천, 원우회 월 1회 모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 010-5692-9998

조선대학교·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 동강대학교

관상 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친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순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나는 놓고 그자도 모른다"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족사주란? 우주의 천사를 풀이한 귀족사주! 시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를 부쳐진 귀족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1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과과정	기간 및曜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tbl_r cells="6" ix="5" maxcspan="1"